

#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성과의 관계\*

황 덕 순\*\*

## I. 들어가는 글

한국의 고용률은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락한 이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0년 초반 이후 장기간 정체상태에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달리 OECD 여러 나라의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던 여러 선진국들이 1990년대 혹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한 고용성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적으로 고용창출의 모델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우수한 고용성과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그 동안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성과의 관계가 변화해 왔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실제로 나라별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성과는 경제성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및 자원 부존과 같은 기본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구조, 문화 등과 같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들, 경제·산업정책 및 복지·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러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들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 및 분석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제III장에서는 사회경제체제 유형별로 대표적인 나라들의 경제성장과 고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IV장에서는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본 원고는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한국노동연구원 개원기념 토론회 발표문 중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성과 비교분석」을 재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 II. 분석방법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의 유형화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접근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구미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을 자유주의형(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대륙유럽형(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북유럽형(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남유럽형(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아시아형을 위와 구분되는 다른 유형으로 추가하기도 하고, 동유럽의 체제전환 국가들도 사례로 포함할 경우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속한 아시아형에 더해 자유주의형과 대륙유럽형, 남유럽형, 북유럽형의 5개 유형, 11개 나라를 사례국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례국가는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 최근에 고용성고가 두드러지게 개선된 나라,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유형별 사례국가들은 동아시아형의 한국과 일본, 자유주의형의 미국과 영국, 대륙유럽형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남유럽형의 이탈리아와 스페인, 북유럽형의 스웨덴과 덴마크 등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고용성과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은 고용탄력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 고용탄력성은  $E/Y$ ( $E$ 는 고용증가율,  $Y$ 는 경제성장률)으로 정의된다. 한편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즉,  $E = a + bY$ 로 가정하고, 관찰되는 고용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경제성장은 곧바로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제도적 조건에 따라 일정한 경제성장률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하거나( $a < 0$ 인 경우, 이 때에는 경제성장률( $Y$ )이 일정한 양의 값인  $-a/b$ 인 경우에만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함),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a > 0$ 인 경우, 이 때에는 경제성장률( $Y$ )이 일정한 음의 값인  $-a/b$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함)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고용이 경제성장에 반응하는 정도( $b$ )와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성장률( $-a/b$ )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Schmid(2008)는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의 관계를 1986년과 2006년

1)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의 유형화론과 사례대상 국가의 선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위의 토론회 발표문을 참고.

의 기간에 대해 1986~1997년, 1995~2006년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접근방식을 사용하되, 분석대상과 시기를 더 확장하고, 시기구분을 달리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70~2009년을 1990년대 전반을 기점으로 두 시기를 나누어 경제성장과 고용증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본다. 1980년대까지는 OECD 주요국들이 1970년대의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아가는 시기였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신경제’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호황이 전개되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통합이 가속화되는 등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어 왔다.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고용성과 측면에서도 여러 유럽국가들이 1990년대 이전과 달리 상당히 우수한 고용성과를 보이는 등 이전과 달라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라별로 1990년대를 전후한 두 시기를 구분하는 시점은 조금씩 다르다. 기본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 새로운 경제순환이 시작되는 시기 - 경제성장률의 추세가 바뀌는 시기 - 를 새로운 시기의 기점으로 선택하였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를 전후로 경제구조와 고용구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독일은 통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에 경제성장률 추세가 변화하고, 고용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를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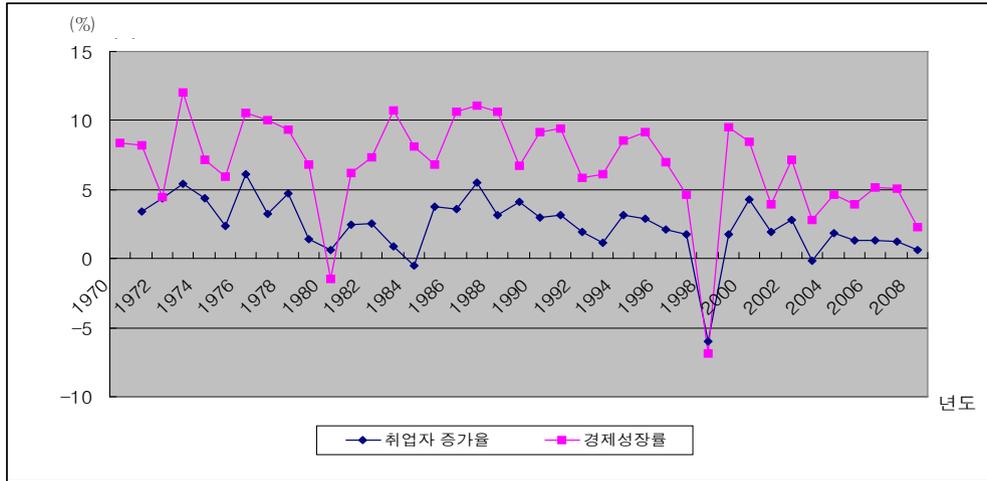
### Ⅲ.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 1. 동아시아형 : 한국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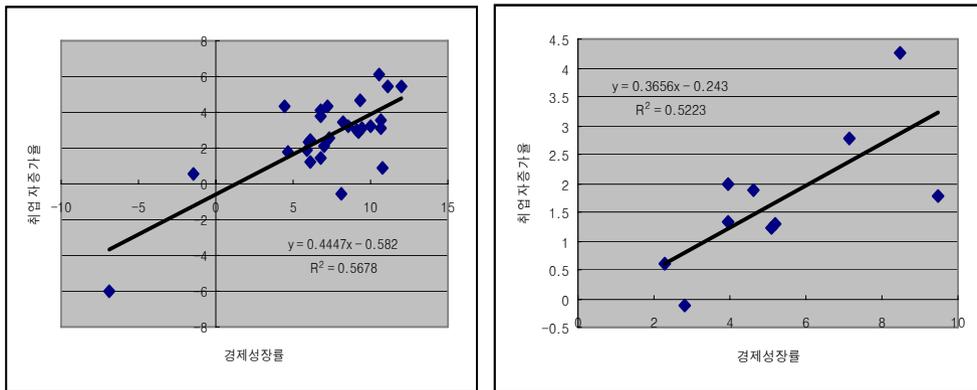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 1). 이러한 관계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전과 후에도 큰 차이가 없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이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경제성장률과 외환위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그림 2]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0.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sup>

2) 다음에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엑셀 그림에는 추세선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본문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95% 이상의 신뢰구간 안에서 유의미할 경우 별도의 표시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추이(1970~2008)



[그림 2]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8

(나) 1999~2008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1%의 경제성장률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는 0.44%에서 0.36%로 약간 낮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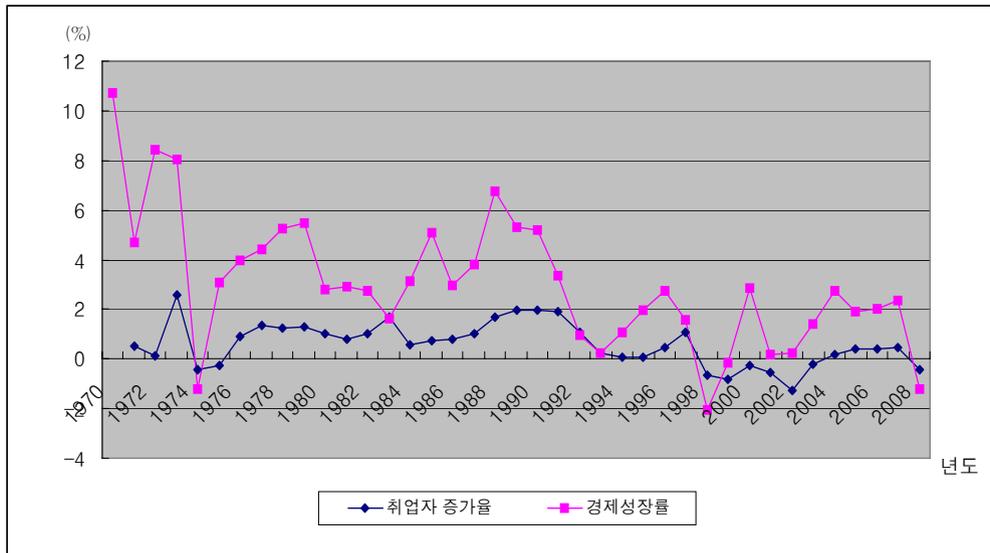
그러나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a/b)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1.31%에서 0.66%로 낮아져서 노동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더 탄력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까지 감안한다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고용탄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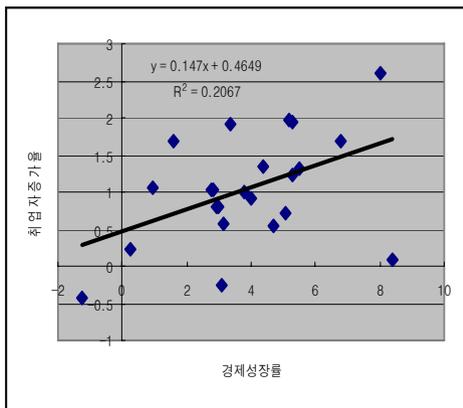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한국보다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그림 3).

또한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에 따라 장기간의 침체에 들어간 이후와 그 이전 사이에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버블붕괴 이후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평균적으로 취업자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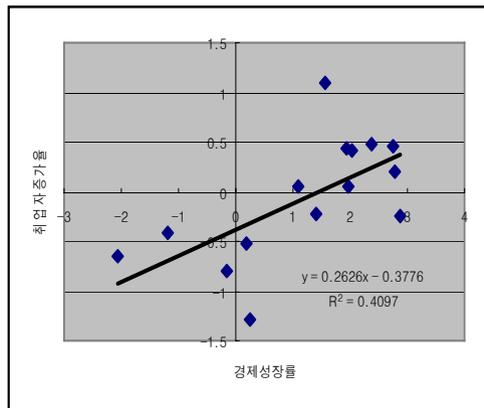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4]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3



(나) 1994~2008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버블붕괴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경제성장과 취업자 증가 사이의 관계가 크게 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이전에는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취업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호황기에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고용이 더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그림 3]에서 취업자 증가 추이가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매우 평탄하게 나타나며, [그림 4] (가)의 회귀식에서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0.147%로서 매우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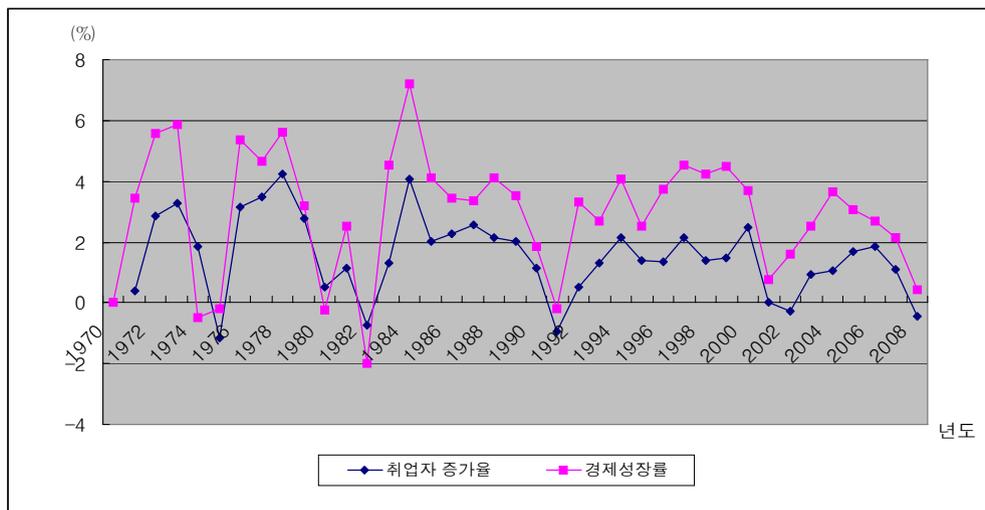
버블붕괴 이후의 경제성장과 취업자 증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이 1.44%로 크게 높아진다. 비록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0.263%로 과거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지 못하는 시기가 많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경제성장과 취업자 증가 사이의 관계가 더 긴밀하고, 노동시장도 경제성장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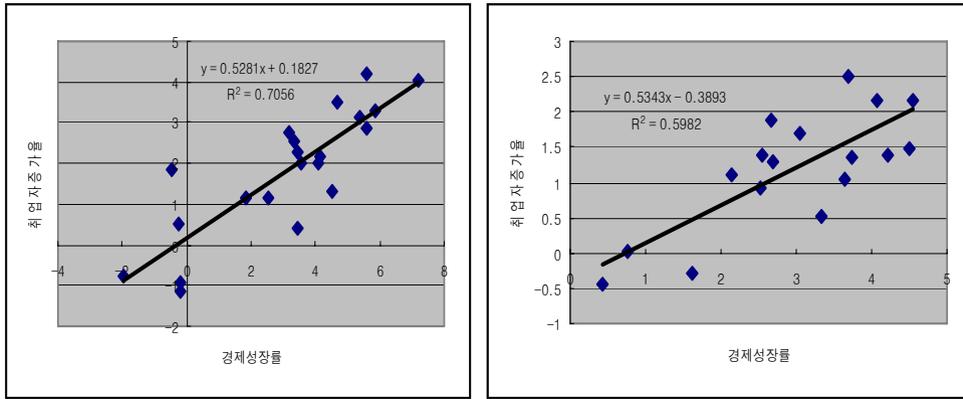
## 2. 자유주의형: 미국과 영국

[그림 5]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두 지표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두 지표 사이의 관계도 긴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1990년대 초반 이후 두

[그림 5]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6]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1

(나) 1992~2008

지표 사이의 괴리가 약간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6]에서 살펴본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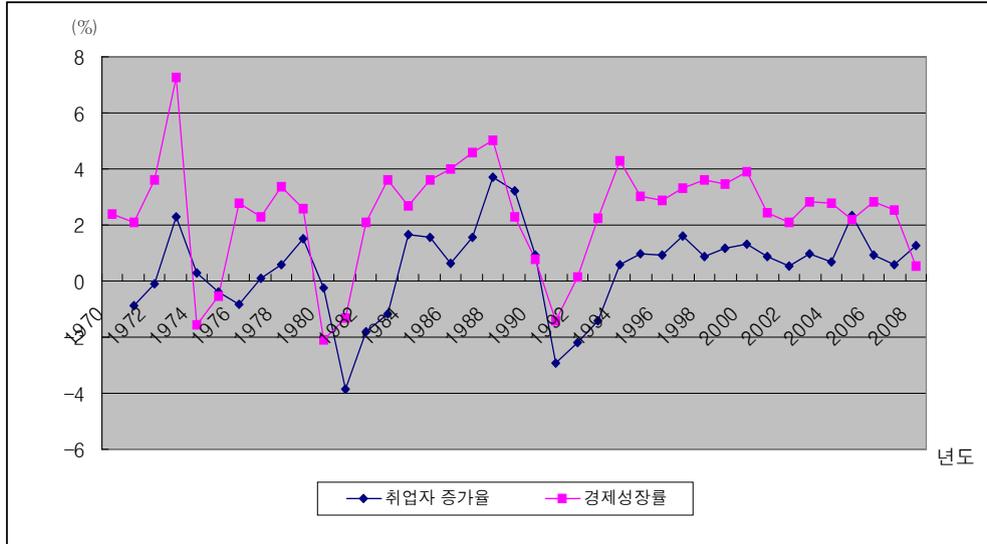
우선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에 대한 설명력이 1991년 이전에는 0.7을 넘고, 1992년 이후에도 0.6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따라서 고용증가에 대한 경제성장의 설명력이 동아시아형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이전과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사이의 관계가 약간 달라진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1991년 이전에 미국은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이 -0.35%로서 매우 낮고,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도 0.528%로서 매우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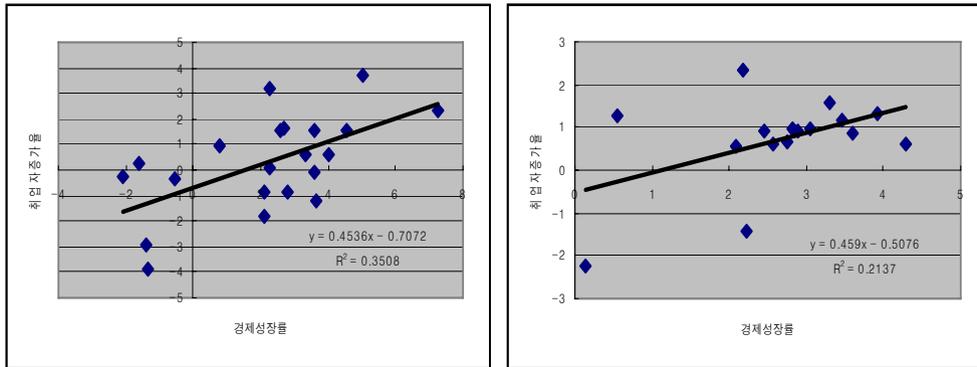
한편 1992년 이후에도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0.534%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이 높지만,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은 0.73%로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다. 이 숫자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EY로 고용탄력성을 측정하면 1992년 이후에 이전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영국도 미국과 같이 같은 자유주의형에 속하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 증가 사이의 관계는 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일부 시기에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그림 7). 이에 따라 취업자 변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그림 8]에서 경제성장의 취업자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0.2대, 혹은 0.3대로 미국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서 한국과 비교하더라도 경제성장이 고용성과를 설명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7〕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8〕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1

(나) 1992~2008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는 0.454%(1991년 이전), 0.45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보다 높지만,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이 모두 1%를 모두 넘어서 미국에 비해 고용이 경제성장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자유주의형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은 미국에 비해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하고, 노동시장도 경제성장에 대해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 3. 대륙유럽형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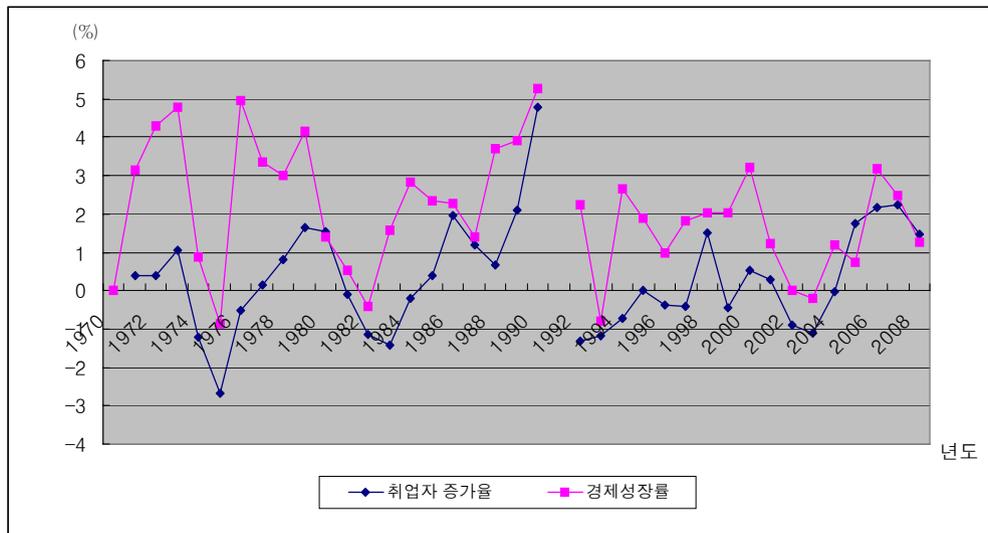
독일의 경우 1990년 10월에 통일되었기 때문에 1991년까지의 서독과 1992년 이후의 통일독일을 서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림 9]에서 1991년에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다.

통일 이전 서독의 경우를 보면, 경제성장과 취업자 증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는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등 두 지표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 10] (가)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0.39로서 그다지 크지 않고, 취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도 1.76%로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90%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 결과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0.565%로서 비교적 높더라도  $\hat{Y}$ 로 고용탄력성을 측정하면 고용탄력성은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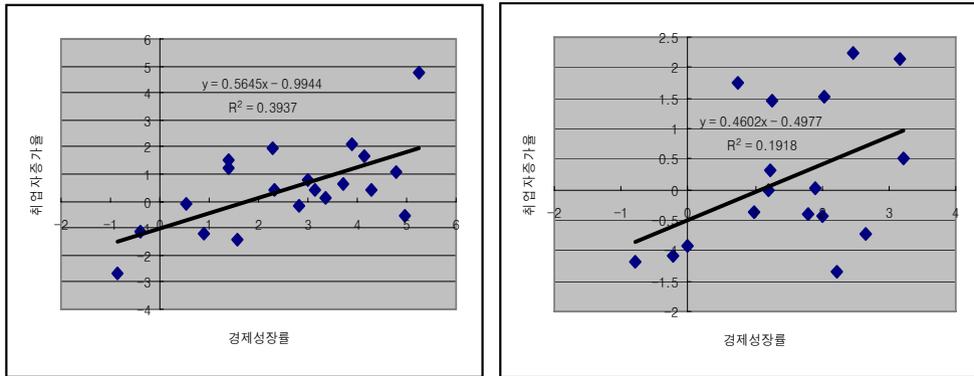
통일 이후에도 비교적 최근의 시기인 2004년 이후를 제외하면 그 이전까지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를 설명하는 설명력도 0.192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그림 9]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달라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과 고용증가 사이의 관계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9] 독일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10] 독일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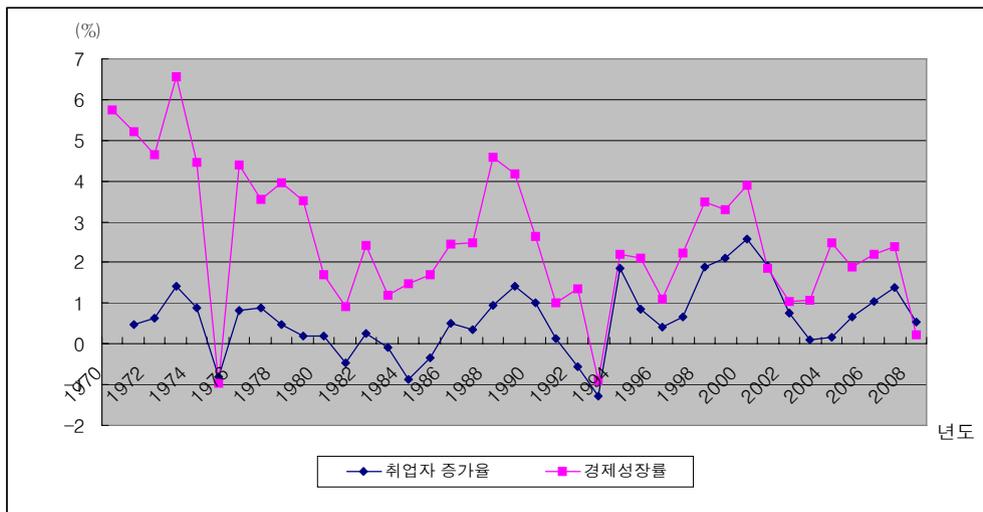
(가) 서독: 1971~1990

(나) 통일독일: 1992~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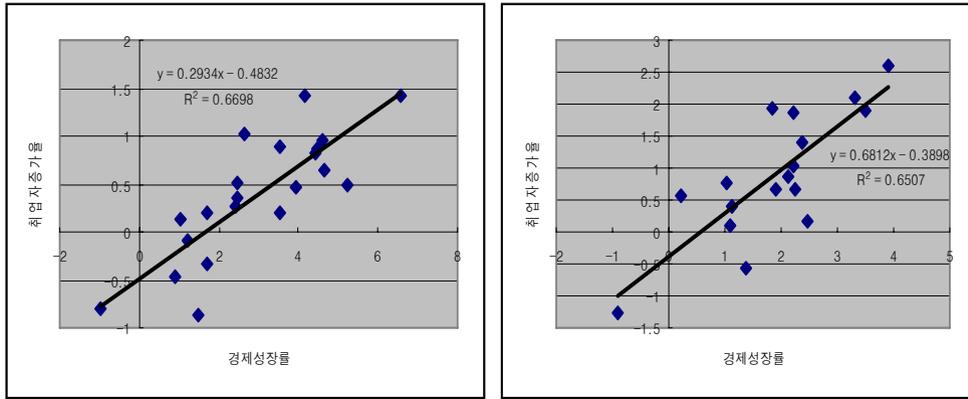
프랑스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1990년대 전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다. [그림 11]에서 두 지표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은 1990년대 전반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 이전에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괴리가 크지만, 1990년대 전반 이후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진다.

구체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1993년 이전과 이후 사이에 경제성장률이 고용변화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각각 0.7과 0.65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고용변화 사이의 관계는 그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다(그림 12).

[그림 11] 프랑스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12] 프랑스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1

(나) 1992~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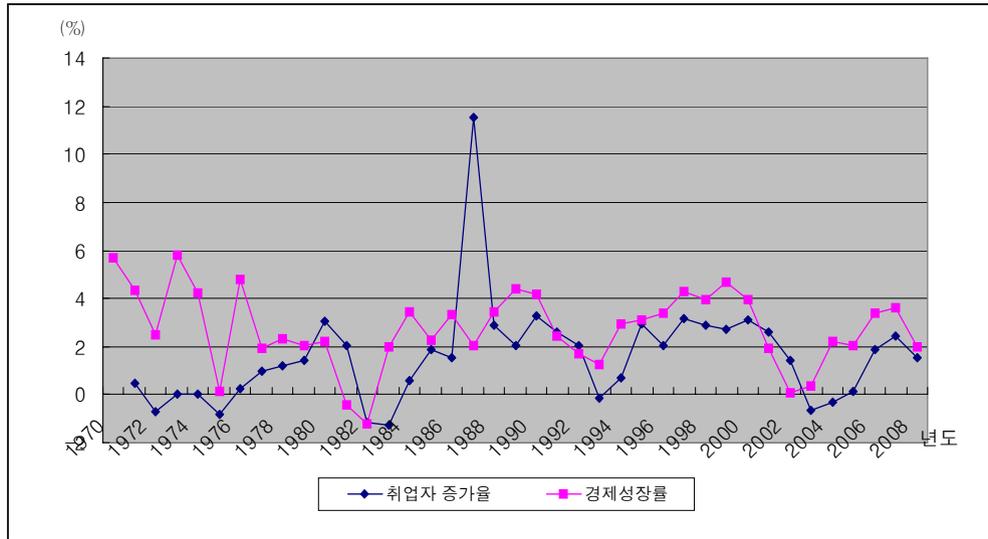
1993년까지는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0.293%로서 비교적 낮고,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도 1.65%로 매우 높았으며 두 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1994년 이후에는 1%의 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0.68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우 높고,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성장률은 0.57%로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1994년 이후 프랑스는 미국보다 더 고용이 성장에 비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국가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고용률이 낮았던 프랑스가 2000년대 후반에는 한국을 추월해서 고용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 전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사이에 가장 극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바뀐 나라이다. [그림 13]에서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 특히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률과 고용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일부 시기에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관계가 이전에 비해 매우 긴밀해졌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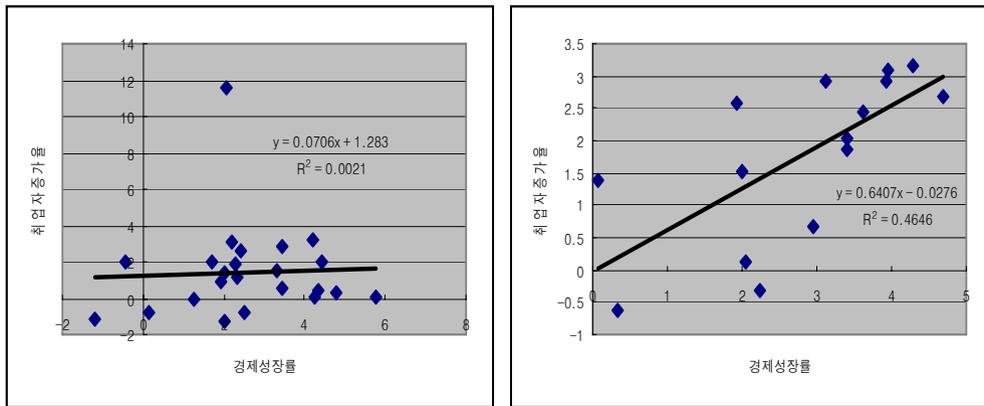
[그림 14] (가)에서 1993년 이전의 네덜란드에서 경제성장의 고용변화에 대한 설명력은 0.002로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변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13]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특별히 높게 나타난 1987년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1994년 이후에는 모형의 설명력이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도 0.64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나아가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도 0.04%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아

[그림 13]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14]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3

(나) 1994~2008

서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면 곧바로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용탄력성도 매우 커지게 되었다.

이를 앞서 살펴본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비록 약간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네덜란드의 고용탄력성이 프랑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네덜란드가 우수한 고용성과를 보이는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4. 남유럽형 : 이탈리아와 스페인

대륙유럽형의 일부로 분류되기도 하는 남유럽형의 경우 오랫동안 본 연구에서 사례대상 국가로 다루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보다 더 고용성과의 낮은 나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특히 스페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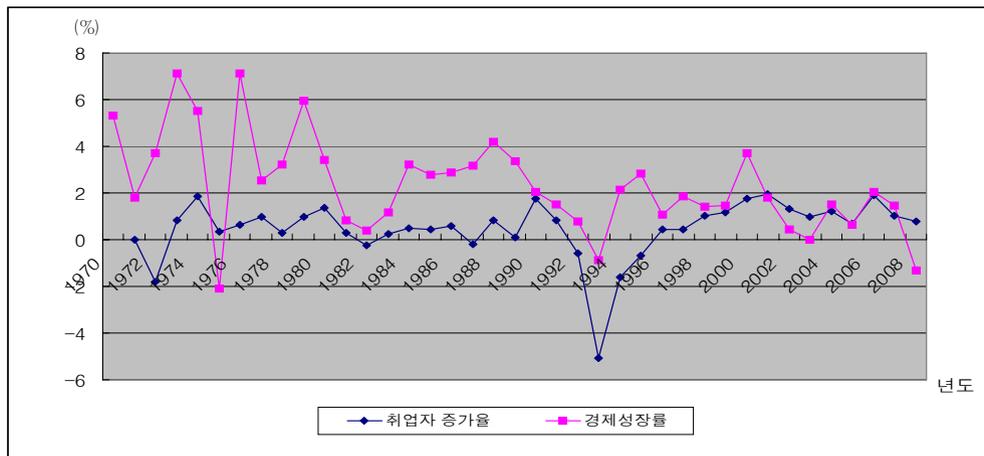
우선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과 그 이후에 경제성장률과 고용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괴리가 크고, 여러 시기에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특히 1996년 이후에는 두 지표 사이의 괴리가 크게 작아지고, 2001년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지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경제성장의 고용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설명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6).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는 1995년까지 0.263%, 1996년 이후 0.202%로서 큰 변화가 없지만,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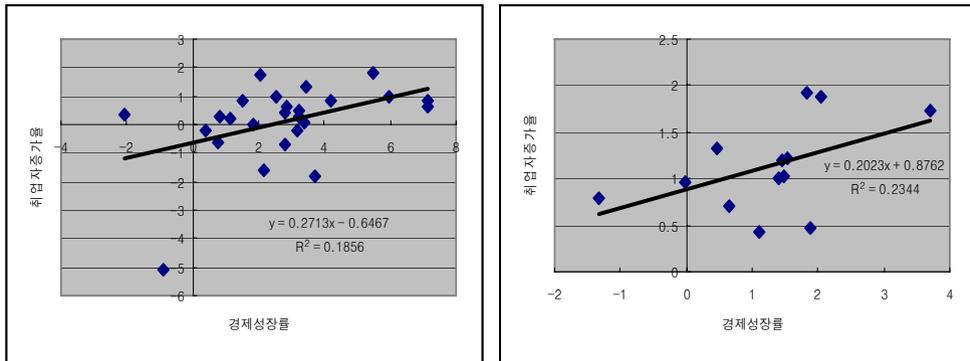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1995년 이전에는 1.98%로 매우 높았지만, 1996년 이후에는 -4.33%로서 크게 낮아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바뀐다. 따라서 1996년 이후에는 경기가 변화하더라도 꾸준히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그림 16] (나)에서 이탈리아는 매년 취업자 증가율이 0보다 높다.

스페인과 앞서 살펴본 프랑스 및 네덜란드와 함께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률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가장 극적으로 바뀐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17]에서 경제성장률과 취

[그림 15]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16]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5

(나) 1996~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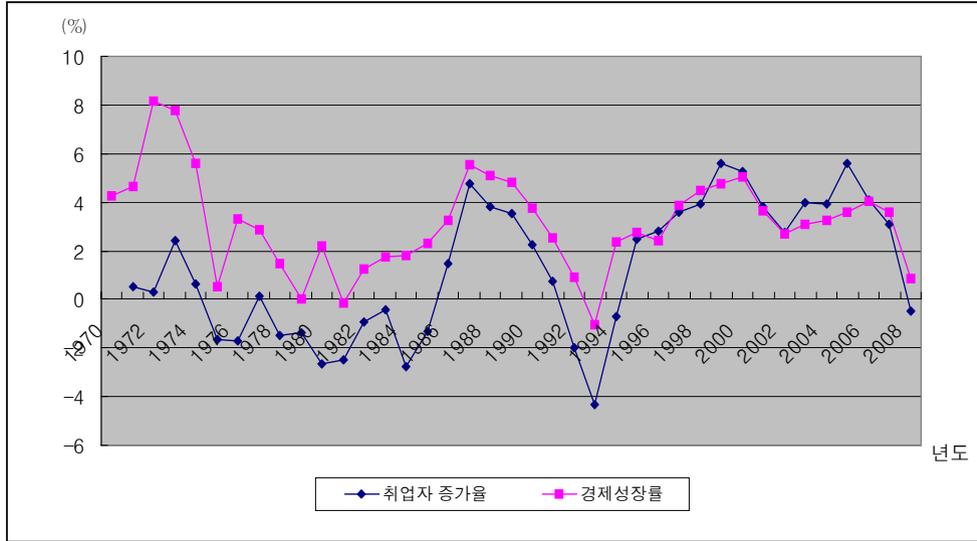
업자 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 특히 198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 고용이 줄어드는 해가 많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두 지표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용이 꾸준히 증가한다.

1993년 이전과 이후에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의 고용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0.54로부터 0.69로 크게 늘어나며 두 변수 사이의 관계도 크게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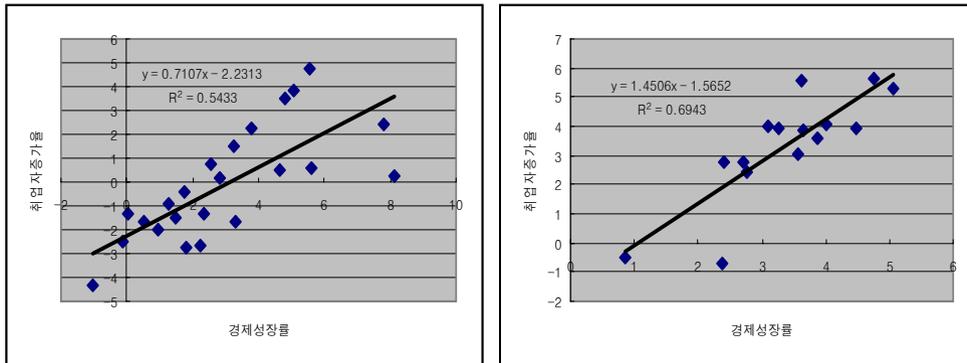
1993년 이전에는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이 3.14% 매우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따라서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0.711%로서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장률 4% 이하에서는 취업자 증가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스페인의 노동시장이 고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1994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극적으로 역전된다.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이 1.08%(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음)로서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가 1.451%로서 매우 높아진다. 이는 성장률이 3.47%를 넘으면 취업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그림 17]에서 여러 시기에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1.08% 아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8년을 제외하면 스페인은 1995~2007년 사이에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고용탄력성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다만, 2008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림 17] 스페인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18] 스페인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3

(나) 1994~2008

### 5. 북유럽형: 스웨덴과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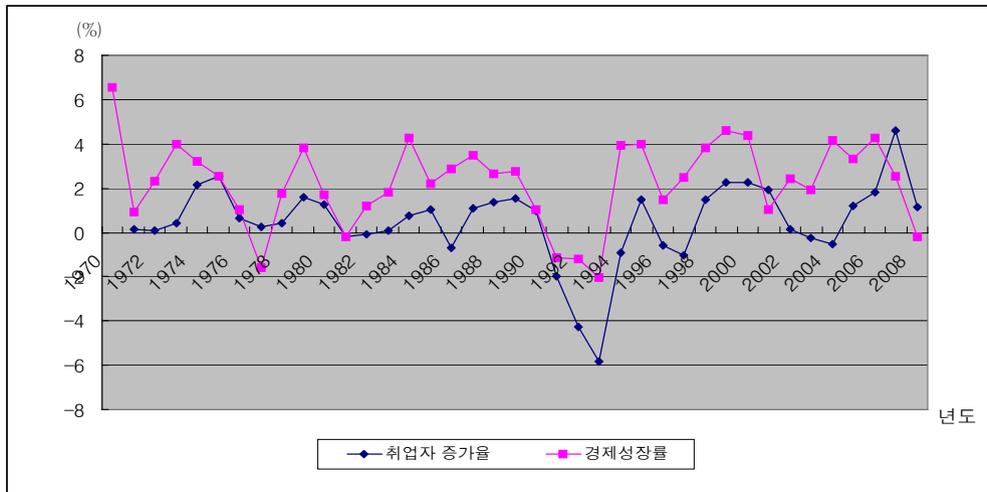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대륙 국가들이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률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높은 고용성과를 보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스웨덴은 반대방향으로 바뀐 사례이다.

스웨덴은 1990년에 83.1%라는 기록적인 고용률을 달성했고, 본 연구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인 1970년에 이미 고용률이 72.3%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고용성과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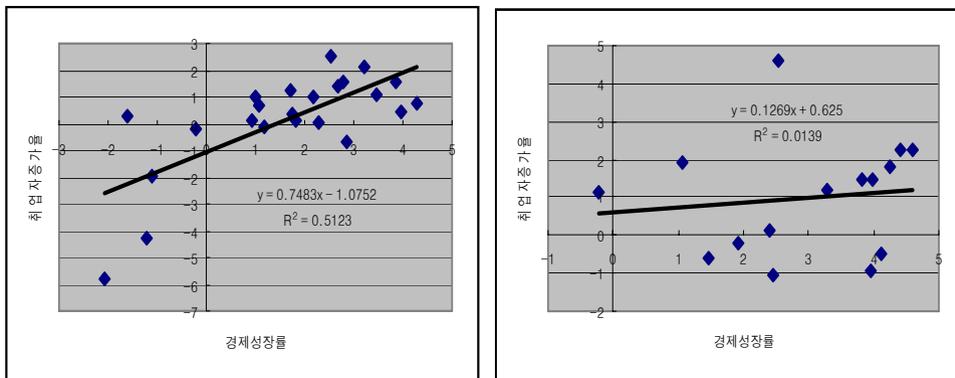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997년에는 70.7%까지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 고용률이 다시 회복되어 2008년에는 75.7%까지 높아졌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다시 72.2%로 낮아졌다.

여전히 스웨덴의 고용률이 네덜란드, 덴마크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위에서 서술한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크게 약화된다. [그림 19]에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급락한 1990년대 초반 이후,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크게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19] 스웨덴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20] 스웨덴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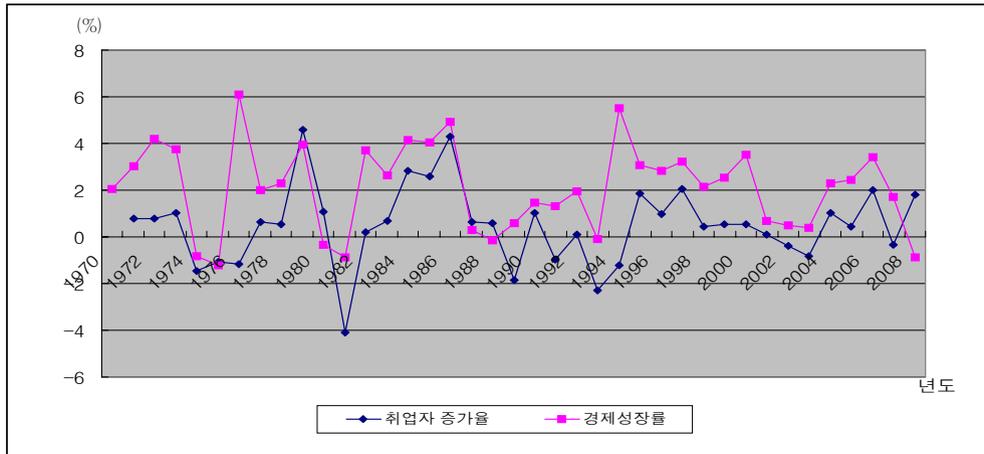
(가) 1971~1993

(나) 199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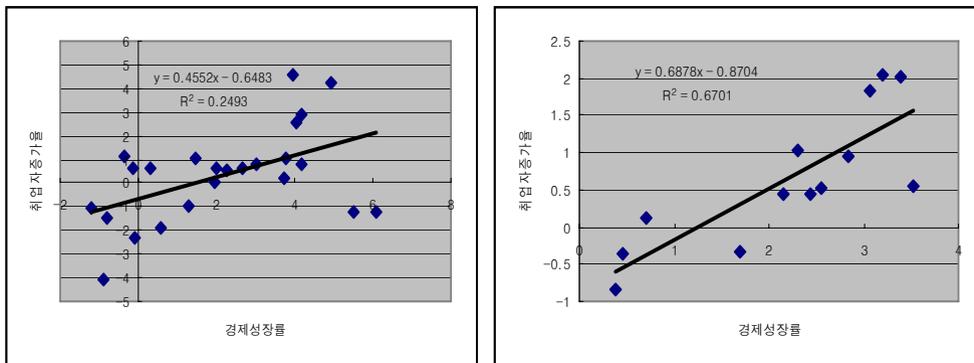
[그림 20]에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1994년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고용변화 사이에 뚜렷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1993년까지는 경제성장의 취업자 증가에 대한 설명력이 0.51로 그다지 낮지 않은 수준이다.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도 0.748%로서 매우 높다. 다만,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1.43%로서 노동시장이 그다지 유연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같은 북유럽형에 속하지만 덴마크는 스웨덴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21]로부터는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경제성장과 고용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덴마크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1970~2008)



[그림 22] 덴마크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



(가) 1971~1991

(나) 1992~2007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변동폭을 살펴보면, 1991년 이전에는 같은 수준에서 변동하거나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는 시기가 섞여 있는 반면에 1992년 이후에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의 괴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 이전에 비해 1992년 이후에 경제성장의 고용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높아진다(그림 22의 R2의 변화, 0.249→0.670). 또한 1991년 이전에 비해 1992년 이후에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정도도 크게 높아진다. 또한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도 1991년 이전의 1.42%에서 1.27%(통계적으로 유의미)로 약갓 낮아지고, 1%의 경제성장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는 0.455%에서 0.688%로 크게 높아진다.<sup>3)</sup>

따라서 덴마크의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변화 사이의 관계가 높은 고용성과를 보이던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이전의 스웨덴과 비슷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덴마크의 고용률은 1993년 72.4%로부터 2008년 78.1%로 더욱 높아진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고, 양호한 고용성과를 나타낸 것이 덴마크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화두로 등장한 유연안정성의 모델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 IV. 맺음말 : 주요 결과와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는 1990년대 초반을 계기로 미국과 여러 유럽국가 사이에 경제성장과 고용증가 사이의 관계가 역전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고,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정도가 강했다. 경제성장과 고용증가 사이의 관계가 미국만큼 밀접한 나라는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된다. 미국에서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이전에 비해 떨어진 반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증가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미국보다 더 고용탄력성이 높아지고, 고용성과가 개선된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제성장률은 미국에 비해 높지만, 1%의 경제성장률이 취업자 증가율로 이어지는 정도는 미국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은 고용성과가 우수한 반면, 유럽은 고용성과가 나쁘다는 통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는 높은 고용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

3) 덴마크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취업자가 늘어난 2008년을 제외하고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제체제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고용없는 성장’이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 나라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 유럽국가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유럽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약하다.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형에 속하는 영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고용변화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하고, 1990년대 초반 이후에도 그 이전에 비해 고용이 성장에 반응하는 정도가 약간 개선된 데 불과하다. 1990년에 통일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독일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조금 개선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명확히 나타났는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독일이 보여준 고용안정성과 높은 경쟁력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전에 미국과 함께 가장 우수한 고용성과를 보인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용률이 크게 떨어진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화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여전히 네덜란드, 덴마크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그 이전에 비해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1990년대 말에 외환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그리고 일본은 버블붕괴라는 큰 충격을 겪은 이후에 경제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일본에 비해 한국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성과의 관계가 개선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크다. 이 글이 경제성장이 고용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 관계를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의 경험을 탐구한다면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sup>4)</sup> **KLI**

4) 이 글은 본 연구원에서 일자리 대책 평가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고용성과 제고방안 연구의 일부이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나갈 것이다.